

## 南·北, 전쟁 위기에서 '평화의 길' 찾다

고위급 접촉, 25일 새벽 무박 4일 43시간 마라톤 협상 타결  
추석 이산 상봉·당국자 회담 개최·민간 교류 활성화 합의  
北 준전시상태 해제·南 확성기 방송 중단...군사적 긴장 해소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등으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0시55분께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 끝에 성과였다.

이런 합의에 따라 남한과 북한은 이날 낮 12시부터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전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또한, 남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협상을 타결한 후인 새벽 2시에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합의했다"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

키로 했으며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내달 초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낮 12시부터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양측이 합의한 남북 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및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민간교류활성화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는 양측이 고위급접촉 이후 합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한 첫 사례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선포를 결정한 지 5일 만이다. 대북 확성기는 지난 10일 재개한 지 15일 만에 중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북출신 등갑내기 협상의 주역 김관진·황병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25일 오전 판문점에서 '무박 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 전남, 아기들 울음소리 커진다

해남·영암·함평·강진·완도군 합계출산율 전국 1~5위

전남지역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남, 영암 등 전남지역 5개 시군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합계출산율 1~5위를 석권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상위 10개 시군에 전남지역 6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해남군이 2.43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암군(2.00), 함평군(1.95), 강진

군(1.92), 완도군(1.90)이 2~5위를 차지했다. 장성군은 1.82로 10위였다.

특히 해남군은 대체출산율이 2.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 인구 유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역 시도 가운데서는 전남이 1.49명으로 제주(1.48명), 울산(1.43명), 충남(1.42명)을 제치고 가장 높았고 광주는 1.19명으로 전국 평균(1.20명)에 못 미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내년 5월 착공 '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

호남 최대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중인 광주신세계가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부지와 인근 주차장 등에 특급호텔을 세우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최근 건립사업을 위한 첫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 부지는 서구 화정동 이마트(5000평)와 주차장(2600평)

등 2만5000㎡다.

신세계는 해당 부지에 총 6000여억을 들여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로 호남권 최대 규모인 객실 250실 이상을 갖춘 특급호텔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호텔 내에는 지역 최초의 시내 면세점,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 등을 갖춘 백화점, 이마트, 공연장, 갤러리, 생활이카데미, 옥상 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특급호텔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교통대책, 기부채납 규모,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용도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세계측이 제시한 이마트와 주차장 사이 폭 8m, 길이 110m짜리 왕복 2차선 도로 폐지 등이 건축허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세계측은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신청서를 통해 이마트와 (금호월드 옆)주차장 사이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우회길을 놓는 대신 분리된 두 필지를 병합해 특급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해당 도로는 공공부지인 광주시 소유로 폐지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 혼잡 지역내에 대규모 호텔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시민여론과 인근 주민과 상인 등의 의견도 배제할 수 없어 건축허가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본 행정 절차부터 시민 여론까지 모든 것을 감안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6학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9.9(수) ~ 9.15(화)  
전형일 10.2(금) 문의 (062) 605-1114

준B하라 더 멋진 인생을 The B-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B200 CDI 2,143cc 1500kg, 자동7단, 복합연비 16.5km/ℓ (도시연비: 14.9km/ℓ, 고속도로연비: 19km/ℓ), 1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17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